

최초 '무문관' 수좌 제선 선사 재조명

무문관 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 선사
박부영, 원철, 김성우 공저
비율과 소통 퍼냄
1만5천원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문관 수행의 창시자인 제선 선사(1912~? 사진)의 탄생 100주년(2012년)을 맞아 스님의 구도 행적을 정리한 책이다. 그의 행장을 소상하게 찾아내 써내려가고 있다. 제선 선사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무문관 수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제선 선사는 도봉산 천축사 좁은 토굴에서 6년간 폐관 수행을 한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생사여부가 불확실 하고, 선사의 높은 경지를 활자로 옮길 엄두를 낸 이가 없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수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늦가을, 백련암에 안거하며 정진했던 제선 스님은 공무로 관청에 갔다가 밝게 백련암으로 돌아오던 길에 호랑이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었다. 잠시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호랑이와는 불과 한 칸을 사이로 마주 앉아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가야산 주인이 너인가, 나인가!' 좌선삼매에 몰입하였다. 한참 뒤 살펴보니 앞다리를 꼳꼳하게 세우고 잠아먹을 듯이 무섭게 앉았던 호랑이가 참회하듯 앞 다리를 꾸부리고 풀이 앉아 있었다. 스님의 수행력에 축생의 사나운 짐승도 감화되어 심성이 맑아진 것일까! 호



'무문관' 수행을 열고 홀연히 사라진 제선 선사



일제시대 백련암 시절(앞줄 오른쪽 끝이 제선 선사)



천축사 무문관 개원법회서 테이프컷팅하는 제선 스님(오른쪽 두번째)

머물던 천축사 토굴 '무문관' 효시

홀연히 사라져 전설로만 회자

호랑이에게 "발보리심하라" 등 일화 소개

무문관 수행의 의미와 역사 점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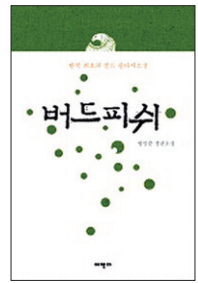
랑이의 선근을 확인한 스님은 가까이 가서 호랑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발보리심하라.'는 설법을 하고는 유유히 백련암에 도착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석영당과 제선 선사의 수행과 삶'에서는 스님의 삶과 수행을 적고 있다. 일타 스님께서도 생전에 법문과 책자에서 자주 인용했던 제선 선사의 가야산 호랑이를 감회시킨 발보리심 이야기, 개가 아들로 태어난 인과응보,

불교 녹아 있는 최초 골프소설

버드피쉬

방민준 저 | 아젠다 퍼냄 | 1만2천원



한국 최초의 골프 판타지 소설이다. 골프 기술을 소개하는 책이나 골프 관련 에세이는 많이 있지만 골프소설은 없었다. 책은 저자 방민준이 직접 체험한 골프 세계의 감동과 경이를 새로운 장르 소설로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저자는 골프와 조우한 뒤 골프의 밀림에 묻힌 정신세계를 더듬으며 체험한 감동과 경이를 한편의 소설로 그려냈다. 골프가 서양에서 발원한 스포츠지만 골프 자체에 깃든 정신과 골퍼에게 요구되는 동양의 사유를 새롭게 발견한 저자는 동서양의 교감을 통한 골프의 완성을 꿈꾸며 한편의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 중간에 등장하는 삽화는 골프의 동양사상에 몰입한 저자가 그린골프 수묵화로, 새로운 볼거리다. 저자에 의해 창조되어 제목으로 쓰인 '버드피쉬'는 새의 머리와 날개에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한 상상의 동물로, 창공을 날고 싶은 새와 깊은 바다를 유영하고 싶은 물고기의 꿈을 함께 담고 있다.

인도, 티베트, 네팔, 중국, 일본 등지를 3년 여간 떠돌던 주인공 존은 선(禪) 사상을 찾아 한국의 사찰 순례에 오르고 우연히 지리산에서 막걸리 도사를 만난다. 그는 그를 걸리도사라 부른다. 걸리도사와 지리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존은 걸리도사로부터 선과 골프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존이 지리산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걸리도사는 처음으로 존을 데리고 읍내 5일장 날들이에 나섰는데, 그곳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보고 존은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골프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침을 느낀다. 걸리도사 역시 과거에 골프에 애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둘은 골프를 통한 정신적 교감을 쌓아간다.

어느 날, 걸리도사는 존을 데리고 송광사로 간다. 그곳에서 심우도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며,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찾아 돌아와 끝내는 소와 자신마저 있다는 심우도에 얽힌 내용을 가르쳐 준다. 지리산에 겨울이 찾아오고 존은 영국으로 돌아간다. 걸리도사는 존과 헤어지기 전, 존에게 동양적 사상에 입각한 골프의 진수를 전해 주며 자신이 깎아 만든 '버드피쉬'라는 목걸이를 선물한다. 영국으로 돌아간 존은 세인트앤드루스 디 오픈에 참가하는데 아마추어 선수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된다. 소설은 존이 우승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한국에서 체험했던 불교적인 정서와 선사상 등이 소설속에 그려진다. 한국 최초의 골프 판타지소설이다.

저자 방민준은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골프의 정신세계를 조명한 에세이집 <달마가 골퍼채를 잡은 까닭은?> 등을 펴냈다.



저자 · 방민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6~1/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원지공원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크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기도	법륜	정토출판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9	왜 선문답은 동문서답인가	이은윤	동아시아
10	반야참회	해룡	불광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배움에 들어선 이에게

초발심자경문

화령 옮김 | 불교총지중 법정원 퍼냄 | 1만2천원



출가하여 발심하는 학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들을 모은 <초발심자경문>이다. <초발심자경문>은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과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조선시대 때 합본된 것이 분명하나 언제, 누가 합본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무릇 처음 불문에 들어온 자는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친하고 가까이해야하며, 오교와 십계 등을 받아서 지키고 법하고 열고 막음을 잘 알아야 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의지하지 어려서는 무리들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계초심학인문-처음으로 배움에 들어선 이에게

훈계하는 글>은 지눌 스님이 조계산 수선사에서 대중을 인도하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지은 기본규율서로, 1397년 흥천사 초대 주지였던 상종 선사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왕지를 받들어 이 <계초심학인문>을 전국의 청규로 선포한 이래 한국불교의 청규로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행자의 마음 가짐과 지켜야 할 규범, 일반대중이 지켜야 할 준칙, 선방에서 지켜야 할 청규 등이다.

"무릇 모든 부처님이 적멸보궁을 장엄함은 수검 동안 옥심 꿰고 고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마다 불타는 짐 꿰임없이 윤회함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 끊지 못함이라."

<발심수행장-발심하여 수행하라>는 신라의 원효 대사가 지은 것으로, 서산 대사 청허의 법손인 월담 선사가 사미과 교재에 편입했다고 한다. 4·4구의 계송 형식으로 된 <발심수행장>은 발심 수행의 중요성과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적혀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 보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문에서 도를 이루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고취에서 헤매고 있는가?

<자경문-스스로 경계하는 글>은 고려 때 야운 선사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내용이 좋아 후학들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여 함께 묶여 전해져 온다. 내용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을 10가지로 분류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말 것을 스스로에게 경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초발심자경문>은 이처럼 그 내용이 모두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처음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고자 발심하는 학인들이 가슴에 새겨둘 가르침들이다. 때문에 <초발심자경문>의 가르침들은 출가자가 아니라라도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가까이 두고 가슴에 새겨둘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가능한 쉽고 간명한 번역으로 원문의 뜻을 전하고자 했으며, 불필요한 주석들을 생략해 간단하고 명료하다. 역자는 독자들이 책을 통해 옛 스승들이 불도수행에 임했던 투철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책을 수행의 좌표로 삼을 수 있다면 역사로서 기쁠 것이라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최상의 가르침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지금 이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베스트 셀러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 저음 | 552쪽 | 27,000원 | 정토출판